

코스피 3920.37 (-6.22)
코스닥 922.38 (+9.71)
금리(국고채 3년) 3.045 (+0.054)
환율(원·달러) 1469.60 (-1.00) <1일>

metro®



Economy

하나금융그룹

반도체 날고, 車 달리고… 11월 수출 610억弗 역대 최고

반도체 39% 늘어 월간실적 경신
자동차 64.1억 달러로 14% 증가
美관세 여파 석화·철강 등은 부진
연간 7000억弗 목표달성 청신호

지난달 수출이 610억4000만 달러로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이어가고, 자동차 수출도 선전하는 가운데 미국 관세 충격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진정되는 모습이다. 누적 수출은 6402억 달러로 올해 연간 목표인 7000억 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610억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일평균 수출도 13.3% 증가한 27억1000만 달러로 역대 11월 가운데 가장 높았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 38.6% 증가한 172억6000만 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두 달 만에 경신했다. HBM·DDR5 등 고부가메모리 수요가 견조하고, 디램 고정가격이 지난해 4분기 1.5달러에서 지난달 8.1달러까지 뛰면서 단가 상승 효과가 컸다. 누적 반도체 수출은 1526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최대 수출액(1419억 달러)을 넘어섰다.

자동차 수출은 13.7% 증가한 64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폭설·파업으로 선적이 줄었던 기저효과에 더해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판매 호조가

이어졌다. 11월까지 자동차 누적 수출은 660억4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이며, 연간 최대 기록 경신까지 48억3000만 달러만 남았다.

이외에도 스마트폰과 이차전지, SSD, 바이오 수출도 고른 증가를 보였다. 컴퓨터는 AI 서버 수요로 인한 대용량 SSD 증가로 4% 증가했고, 이차전지는 ESS·EV 배터리 동반 증가로 2.2%, 무선통신기기도 폴더블 신제품 판매 호조로 1.6% 늘었다. 농수산물품(+3.3%), 화장품(+4.3%) 등 비주력 품목도 고르게 성장했다.

반면, 석유화학·철강·선박 등은 부진했다. 철강은 미국 관세 50% 부과와 단가 회복 지연에 따라 16% 감소했고, 석유화학 수출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유가가 겹치며 14.1% 줄었다. 선박의 경우 고부가 선박 선가는 높지만 인도 일정 영향으로 17.8% 감소했고 섬유(-10.8%), 가전(-2.4%)도 수요 부진과 미국 시장 둔화 영향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중국과 아세안 등 5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올해 처음 120억 달러를 상회한 12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40.6%)와 무선통신기기(11.1%) 수출이 증가하며 석유화학(-17.1%) 수출 감소를 상쇄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6.3% 증가한 104억2000만 달러다. 석유제품과 디스플레이 등 대부분 품목이 감소했으나, 반도체 수출이 54.6% 늘어 성장을 견인했다.

대중동 수출 역시 일반기계와 석유제



사랑의열매 희망2026나눔캠페인 출범

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채시라 홍보대사, 양종회 KB금융그룹 회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백은별 기부자, 김재록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랑의열매 희망2026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온도탑 점등식에서 김병준 사랑의 열매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점등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채시라 홍보대사, 양종회 KB금융그룹 회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백은별 기부자, 김재록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뉴스1

품을 중심으로 대부분 품목이 호실적을 기록하며 33.1% 증가한 21억8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외에도 CSI(+25.5%)와 인도(+1.8%)로의 수출도 플러스였다.

대미국 수출은 관세 영향을 받은 철강과 일반기계 등 수출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21억7000만달러, +11.3%)와반도체(11억3000만달러, +39.3%)가선전하며 0.2% 감소에 그친 103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정기선 “K-조선 새 역사 시작”

통합 HD현대중공업 출범

방산 매출 10배 성장 목표 제시
친환경·디지털 기술 초격차 추진

“오늘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로, 양사가 가진 기술력과 노하우에 임직원들의 열정이 더해진다면 새로운 혁신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기선 회장은 1일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모든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통합 법인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출범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중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이 국내 1·2위 대형 조선사 합병을 잇따라 마무리하면서 세계 선박 건조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통합HD현대중공업 출범은 글로벌 1위 중·대형 조선사를 하나의 체제가 된다는 점에서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HD현대는 이번 통합이 미국 MASG A(마스가) 프로젝트와 방산 분야에서의 사업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HD현대중공업이 축적해온 함정 건조 기술에 HD현대미포가 보유한 함정 건조에 적합한 도크·설비·인력을 더해군수지원함·잠수함·해빙선·특수목적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35년까지 방산 부문 매출을 현재의 약 10배 수준인 10조 원으로 끌어올리고, 통합 HD현대중공업 전체 매출을 37조 원까지 확대해 세계 1위 조선사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친환경·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차세대 신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양사의 연구개발(R&D)과 설계 역량을 결집해 그동안 주로 중형선 위주로 적용해 온 신기술을 대형선으로 확대하고, 친환경·고도화 선박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탈탄소 규제 강화와 에너지 효율 요구 증대에 발맞춰 친환경 연료 추진선, 에너지 절감형 선형 설계 등 신기술을 선제 적용해 미래 선박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합병은 지난 10월 2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실상 윤곽이 굳어졌다. 당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합병계약 승인 안건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참석 주주의 98.54%, 87.56% 찬성으로 각각 통과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존속법인은 HD현대중공업, 소멸법인은 HD현대미포이며 HD현대미포 주주에게 HD현대중공업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병이 이뤄졌다. 합병 비율은 HD현대미포 1주당 HD현대중공업 0.4059146주다.

/유혜온기자 dhale@

삼성·SK, ‘차세대 HBM’ 기술 경쟁 점화

삼성, HBM3E·HBM4 공급 확대 SK하이닉스, 480조 투자 승부수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MB3E의 엔비디아향 공급을 본격화하며 주요 고객사에 대한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다. 이에 장기간 HBM 시장에서 독점 체제를 구축해 온 SK하이닉스와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양사는 HBM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 및 연구개발(R&D) 비용 투자 규모를 확대하며 차세대 기술 주도권 확보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메모리 개발 통합 조직을 신설하고 산하에 HBM 개발팀을 재배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차세대 HBM 제품 개발에서 삼성전자가 핵심기술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기존 HBM 개발팀을 이끌던 손영수 부사장이 해당 설계팀의 팀장으로 차세대 HBM개발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번째 팹(공장)을 2027년 가동하며 HBM4, HBM4E 등 차세대 제품 공급 확대에 주력한다. SK하이닉스는 용인 클러스터 1개 팹당 120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해 4개 팹에 총 48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양사의 연구개발비 증가세도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올 3분기 누계 연구개발비는 26조 8881억

원으로 전년 동기(24조 7464억원) 대비 8.6% 상승하며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 또한 3분기 누계 연구개발비가 4조 6472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 5584억원) 대비 30.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1c(10나노급 6세대) 공정 기반의 D램과 4nm(나노미터·1nm=10억분의 1m)로직 다이들 채택한 HBM4 설계가 경쟁사 대비 속도와 저력 소모량 등 성능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당초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되던 출하 일정을 내년 2분기부터 납품을 시작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4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메트로 한줄뉴스



▲李대통령 “게임 명분으로 전쟁날 뻔… 내란행위 방지하면 언젠가 재발”
▲장동혁 “李 정부 잘못에 목소리 내야” 조국 “극우 세력과 절연해달라” /사진 뉴스1

▲법사위 소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되 더 논의키로
▲여객기 참사 유가족 “국토부 신뢰 못 해… 공청회·중간발표 중단해야”

▲오세훈 “특검, 민주당 하명에 기소… 진실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최동석 인사처장 “게임 동조 공무원 많아… 국정 동참 가치 없어”